

## 예배에 대하여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기도교인들의 대표적인 의식이라 할 수 있는 예배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 주에 예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린바 있지만, 오늘은 좀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와 방법, 예배 드리는 태도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요?

예배란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들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굽히고 경배 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의식인데,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신앙 성장을 이루며 다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시편 103편 1-5절]

### ☞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 1. 예배 때에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이것은 창조자가 되시며 섭리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과 전지전능하심과 끝 없으신 사랑을 칭송해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역대상 16장 28절]

#### 2.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또는 찬송을 부르면서 세상에서 지은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모두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성도는 은혜를 받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허물이 많은 자식이라도 부모님 앞에 떳떳해지는 원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사도행전 3장 19절]

#### 3.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교인들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태어나서 숨쉬고 먹고 입고 사는 것 전체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 들릴 때에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베풀었을 때에 상대방이 진심으로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찬양과 기도와 봉사와 희생과 헌금 등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역대상 16장 29절]

#### 4. 예배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찬양과 회개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내려 주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배에서 영적인 양식을 내려 주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설교는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므로, 설교를 통하여 자신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고 위

로와 격려, 또는 책망과 인도하심을 마음 속에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시편 95편 7절]

#### 5. 예배 때는 변화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의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고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과 함께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모든 예배 순서와 함께 자기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로마서 12장 1절]

### ☞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인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성전(단한곳 밖에 없음)이나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교회, 즉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교회에서 지정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 성경구절 : 요한복음 4장 24절]

### ☞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이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의 자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① 예배드릴 때는 언제나 가장 좋은 의복을 단정히 입고 참석합니다.

② 예배 시간 이전에 예배당에 도착하여 마음을 정돈하고 은혜를 사모하도록 합니다.

③ 가정에서 미리 정성스러운 헌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일단 예배당에 들어오면 성경과 기도와 찬송 외에는 되도록 잡담을 하지 않습니다.

⑤ 회개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예배드려야 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심정을 가집니다.

⑥ 예배를 들릴 때는 책을 보거나 낙서를 하거나 껌을 씹는 등 불경건한 행동을 피합니다.

⑦ 어린이와 함께 오신분은 유아실에 가서 예배드리거나 아이의 출입을 조심시킵니다.

⑧ 예배 시간 전에 주보를 상세히 보고 찬송과 성경을 찾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⑨ 예배의 전체 순서를 모두 마치기 전에는 퇴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⑩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갑니다.

### ☞ 주일 예배에 대하여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라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남녀, 빈부 귀천, 어디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해 두고 모이고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며 예배드리는것은 성도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주일 낮 예배 이외에도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밤, 금요일 새벽 예배, 매일 드리는 새벽예배 등 여러 예배 시간을 두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서 한국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종류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늘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가정이나 직장, 학교 등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는 예배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에 드리는 비정규적인 예배들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기독교의 예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신앙 생활도 그만큼 윤택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략한 기독교 용어 해설

**-아 멘-**

‘아멘’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의 하나입니다. 왜 우리는 ‘아멘’을 그렇게 많이 할까요? 아멘(Amen)이란 히브리어로서, ‘진실로 그렇게 되옵소서’라는 동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나 송영의 끝에 사용하여 그 말이나 찬양을 시인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확인의 뜻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기도 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님의 말씀이나 성가대의 찬양에 한 목소리로 화답하여 아멘 함으로써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도의 한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난 후에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을 잘 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b>예 배 안 내</b>	<b>주 일 예 배</b>	1부 예배 : 오전 9시
		2부 영어 예배 : 오전 9시 (2층)
		3부 예배 : 오전 11시
		유*초등부 예배 : 오전 11시
		중*고등부 예배 : 오전 11시
	<b>기 타 예 배</b>	새벽 기도회 (매일) 오전 6시
		수요 삼일 예배 저녁 8시 30분
		금요 찬양 기도회 저녁 8시 30분
		중*고등부 금요 찬양예배 저녁 8시 30분
	<b>정 기 모 임</b>	화요일 / 한어 대학*청년부(영) 저녁 8시
		토요일 / 영어 대성경 공부(한) 오후 5시
		토요일 / 청소년 성경공부 저녁 8시
		토요일 / 한국학교 오전 9시

**한인동산장로교회**

**NEW HOPE REFORMED CHURCH**  
 100 Herrmann Place, Yonkers, NY 10710  
 사무실 : (914) 961-9250 / 1 (Fax 겸용)  
 Website : <http://www.newhopeministry.net>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큰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 지고 싶어 부유함 구했더니

지혜로워 지라고 가난함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칭찬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걸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뉴욕 주립대 부속병원 재활센터 벽에서-